

#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 A Study on the Family Stress and Coping Strategy, Family Strengths among Commuting Couples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최정혜\*\*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 Choi, Jeong-Hye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amily stresses and its managing strategy to cope with the stresses, and family strengths among commuting coupl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a national samples of 134 couples (268 individuals), whose has been commuting for at least six months.

The major finding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 1) The degree of family stresses among commuting couples was 2.98, when the maximal stress value was set to 5.0.  
The most stressful aspect for the commuting couples came from the role of parents who care for their children.
- 2) The degree of coping strategy among commuting couples was 3.37, when the maximal coping strategy value was set to 5.0. Among the strategies, the 'cognitive restructuring' shows the first.
- 3) The degree of family strengths among commuting couples was 3.76, when the maximal strengths value was set to 5.0.  
Also factors affecting the family strengths among commuting couples are dependent on their educational degree, religion, kind of jobs, commuting and conjugal periods, moving person, meeting frequencies, self-esteem and marital satisfaction.
- 4) The most effective variable of family strengths among commuting couples was marital satisfaction.

▲주요어(Key Words) : 주말부부(commuting couple), 가족스트레스(family stresses), 대처전략(coping strategy),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s).

### 1. 서론

현대사회의 전반적인 변화는 가족형태의 다양성과 기능적 변화를 유도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창출하게 되었다. 즉 산업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가족가치 및 구조의 변화, 가족기능의 변화 등을 유도하면서 비동거 가족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양식을 출현시켰다고 할 수 있다(김

은경, 1999; 최정혜, 2002). 현대 산업사회의 특징 중의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이고, 특히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라 할 수 있으며, 통계청(2001)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기혼 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77.8%로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기혼여성 취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IMF 이후 자녀교육비 및 생활비의 충당과 같은 경제적 이유와 또 하나는 여성의 교육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로서의 취업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곽인숙, 2003). 이처럼 사회변화와 맞물려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게 되었으며 직업상의 이유로 주중에는 가족이 떨어져 살다가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도 나타나게 되었다.

주말부부는 형성 초기에는 주로 남편의 지방근무라는 직업적

\* 본 연구는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한국가정관리학회 2002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주 저 자 : 최정혜(E-mail : jhchoi7@nongae.gsnu.ac.kr)  
경상대학교 교육연구원 책임연구원임

인 이유로 인해 부인과 자녀는 대도시에 거주하고 남편만 지방으로 가서 거주하게 된 남편 외유형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직업적 성취와 자아실현을 위한 부부양태형의 주말부부로서 초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직 주말부부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가 없는 실정이며 이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Kim (2001)은 주말부부를 대상으로 면접 조사한 결과 현재의 주말부부 형태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말부부를 가족해체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가족이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행복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주말부부는 가족구성원 간의 심리·정서적 유대가 약화되면서 부부간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조선일보, 2002년 4월 9일; 채옥희, 1998). 즉 주말부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면서 한때 서울시 교육청은 주말부부 교사에 대해서 서울로 전입하게 해 주는 것을 우선한다는 등 주말부부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기(한국일보, 2000년 3월 20일)도 하였다.

주말부부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아동·가족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주로 역할 갈등이나 결혼만족도, 아동의 사회적 적응 및 양육, 가계의 경제구조, 생활시간 등에 관한 것(곽인숙, 2003; 김경은·정옥분, 1998; 김은경, 1999, 2001; 김태현·박숙자, 1992; 문숙재·윤소영, 2003; 한유미, 2003; 허경옥, 2003; 허영숙, 1994)과 인류학자인 Kim(2001)에 의해 수행된 주말부부의 삶에 대한 심층면접 사례를 분석한 것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대부분 주말부부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을 뿐 주말부부의 가족생활 전반에 관한 가족스트레스나 가족건강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대도시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열을 감안할 때 주말부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의 가족생활에 대한 연구 및 규명작업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이기숙, 1999; 한국일보, 2000년 3월 20일). 따라서 변화된 가족형태의 하나로 나타난 주말부부의 가족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나 대처전략, 가족건강성 등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MuCubbin(1981)의 File (Family Inventory of Event and Change)에 근거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File의 하위영역은 가족 내의 갈등, 부부생활상의 긴장, 임신과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긴장과 부담, 직업상 가족의 변화, 질병과 가족의 간호, 상실, 전환, 규칙위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스트레스는 그 중에서 '직업상 가족의 변화' 항목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주말부부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 존재한다. 주말부부는 '무엇보다 자신만을 위한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지만 아울러 단점으로서 서로 분리된 생활의 운영을 각자가 담당해야 하며, 재회 시 종종 서로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기도 하여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별거와 왕래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스트레스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보통의 가정에서처럼 매일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되어 소외감, 외로움 등을 경험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기도 한다(Grove & Hom-wingered, 1991). 주말부부 중에서도 맞벌이 주말부부는 가정생활과 직업을 동시에 추구하는 부부로서 전문직, 기술직이나 관리직 종사자가 많은데(채옥희, 1998) 이런 주말부부는 사회적 통념만큼 자신들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역동적이고 일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연구도 있다(Groves & Hom-wingerd, 1991; Kim, 2001).

어쨌든 주말부부는 부부가 주중에는 각자 떨어져 자신을 중심으로 생활하다가 주말에만 만나서 함께 동거하는 특수상황 때문에 야기되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족생활상의 스트레스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주말부부에게 가족생활 관련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선행연구(김은경, 1999; 옥경희, 1999; 이기숙, 1999; 채옥희, 1998)를 통해 알 수 있으므로 주말부부의 삶의 질 연구에서 가족스트레스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가족스트레스는 부부가 어떠한 대처전략을 갖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말부부가 사용하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알아보는 것은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는 차원에서 의의 있는 연구라 하겠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을 알아보는 것은 건강가족을 육성하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측면이다. 우리가 건강가족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은 가족의 정서적인 관계의 기능을 통하여 안정감과 아울러 진정한 전인적 인간성을 발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성·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개인의 정체성 확립과 소속감의 육구는 건강한 가족에서 얻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유영주, 2001b).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정폭력, 만성불안과 스트레스, 그릇된 가족의식이나 가치관이 전수되어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인으로 육성되지 못하므로, 그들을 건강한 가족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몇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된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요관심은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 좀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유지하느냐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이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족건강성을 연구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인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주말부부의 경우 가족이 주중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가족건강성에 신경을 써야 할 입장이다. 따라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하는 것은 주말부부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여 건강가정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이상의 연구맥락에서 본 연구는 주말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

족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대처전략 그리고 가족건강성 등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되었으며, 본 연구 결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주말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정도는 어떠하며,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결혼만족도, 자아존중감, 가족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전략 중에서 가족건강성을 가장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주말부부 가족은 사회의 통념상 일반부부 가족에 비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김태현·박숙자, 1992; 박숙자, 1991). 그 중에서도 주말부부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선행연구에서(김경은·정옥분, 1998; 김태현·박숙자, 1992; 옥경희, 1999; 한유미, 2003; 허영숙, 1993) 자녀양육 문제가 손꼽히고 있다. 또 맞벌이 주말부부인 여교사들을 연구한 허영숙(1993)의 연구에서도 부모역할 갈등, 부부역할 갈등, 직업역할 갈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며, 김은경의 연구(1999)에서는 남편과 아내 모두 주말부부에서 비롯된 역할 갈등이 제일 높다고 보고 된 바 있다. Bunker, Zubek, Vander-slice & Rice(1992)의 연구에서는 주말부부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것은 남자들에게 훨씬 심한 것으로 보고 되어, 주말부부의 갈등을 시사하고 있다

기혼여성이 가정 내 역할뿐 아니라 가정 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 종종 경쟁적인 역할요구사이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데(Beutell & Greenhaus, 1983) 특히 전문직 취업주부는 일반 취업주부보다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문자·이미리, 2000). 더욱이 주말부부의 경우 직장 때문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동거하지 못하고 주말에만 만나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부부보다 더 큰 가족스트레스를 가질 수 있다(이기숙, 1999).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 연구에서도 전문직 취업주부들은 부모역할, 직업역할, 부부역할 순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전영자, 1997) 가족생활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주부의 남편들 역시 자녀양육과 가사 일에서 다른 영역에서보다 높은 역할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김경신·김오남, 1996; 서혜영·이숙현, 1999), 남

편의 자녀양육과 가사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암시하고 있다.

맞벌이 주말부부와 맞벌이 동거부부를 비교한 Bunker와 그의 동료들(1992)에 의하면 맞벌이 주말부부가 동거부부에 비해 역할 갈등을 훨씬 적게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김은경(1999)은 맞벌이 주말가족과 맞벌이 동거가족의 역할갈등이 모두 중간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밝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일관된 연구경향을 정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주말에만 만나는 주말부부는 특수한 삶의 형태 때문에 가족생활로 인한 스트레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나타난 부부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가사관련 스트레스외에, 성인자녀역할 스트레스를 추가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대처란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이 소유한 자원을 넘어선다고 평가되는 특정한 외적·내적 요구를 관리하려는 인지적·행동적 노력'이다(Lazarus & Folkman, 1984: 141). 이 대처행동은 스트레스 상황에 반응하는 개인의 다양한 행동목표들로 구성된 척도에 의해 측정될 수 있는데, 내적 전략과 외적 전략으로 나눌 수 있다. 내적 전략에는 스트레스 사건을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으로 정의하는 재구조화 전략과 스트레스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 수동적 평가 전략이 있다. 외적 전략에는 확대가족원, 친구, 이웃으로부터의 사회적 지지체계 획득 전략, 정신적 지원 찾기 전략,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을 발견 및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얻기 위해 가족원을 동원하는 전략 등이 포함된다(Olson et al., 1983).

채옥희(1998)는 주말부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스트레스의 해결방법으로 부인이 가정경영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가사노동에 대해 고용인이나 친정·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방안도 소개하면서 전문직 여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문숙재 등(2003)의 연구에서 주말부부 남편은 혼자 살면서 식사나 세탁물 처리 등의 가사노동을 사회화 하거나 또는 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아내들은 자녀와 함께 살거나 다른 가족원과 함께 살면서 여전히 스스로 집안일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주말부부 아내들의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가사노동을 가족들이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광인숙(2003)의 연구에서는 주말부부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중요한 것이 기존의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를 개선하려는 여성 자신의 인식이라고 밝히면서 여성의 사고의 전환을 주장하였다. 한유미(2003)의 연구에서는 주말부부 어머니와 일반부부 어머니 사이에 자녀양육의 죄책감이 차이가 없다면서, 양육의 직접적이

고 행동적인 지원 못지않게 정신적 조언이나 대화 및 심리적 대처가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대처방법에 대해서 부분적인 암시는 있지만 전문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으므로 일반적인 맞벌이 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최규련(1994)은 갈등 대처방안에 대해 외부 도움 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의 6개영역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 '이성적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전영자(1997)는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대처방안에 대해, 역할감소, 도구적 지원, 정서적 지원, 인지 재구조화, 가족체계 재구조화, 역할 간 상황 수정 등의 6가지로 연구한 결과 '인지재구조화' 대처방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조은숙(1997)의 연구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고하였다. 그 외 스트레스 대처방안에서 남편은 주로 이성적이거나 행동표출 유형을 취하고, 부인은 방어적 갈등 대처 유형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명자, 1991; 최규련, 1994; 최혜경·노치영, 1994). 맞벌이 취업부부가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대처행동은 타협으로 보고(Heckman, et al., 1977)되었으며, 또한 학력, 직업, 소득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일수록 사회관계 망의 심리적 자원이 부족하여 문제 상황에 적극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주, 1997; 최혜경·노치영, 1994). 즉 스트레스에 대한 완전한 대처방안은 존재하지 않음(McCubbin & Patterson, 1983)을 알 수 있다.

### 3.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Otto(1962)가 건강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학자들에 따라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족치료학자들은 가족을 체계로 간주하면서 체계가 병리적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하며, 가족학자들은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상호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건강가족을 논함에 있어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면서 사회심리·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다(유영주, 2001a). 그동안 국내에서 정의된 건강가족에 대한 몇몇 개념을 살펴보면 허봉렬(1996)은 가족의 전체적인 체계가 가족의 기본적인 목표를 잘 달성하도록 기능이 수행되고 있을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함으로써 체계의 기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어은주(1996)는 건강한 가족을 가족원 상호간에 규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가족의 공동체, 정서적, 도덕적 관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가족이라고 정의했으며, 유영주(2001a)는 건강가족을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게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

하고 있는 가족으로 정의하였다.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 Stinnet & Sauer(1979)는 애정과 감사에 대한 표현능력, 가족원들이 함께 시간보내기, 가족에 몰입하는 정도나 책임감,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 종교적 태도,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등의 6가지 특징을 보았으며, Curran(1983)은 건강가족의 특성을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문제해결 능력까지 15가지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Hall(1994)은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세대간의 상호작용, 역할공유, 유연하고 개방된 관계, 유연한 신념, 최소한의 권위구조, 활발한 사회적 관계, 안정되고 통합된 체계 등으로 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은주·유영주(1995)가 한국가족의 건강성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는데, 측정도구의 하위요인으로 가족원간의 유대, 문제해결능력, 대화기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공유 등의 4개 영역으로 선정하였으며, 허봉렬(1996)은 건강가족의 조건으로 사랑, 규율, 관용, 적응력, 자유로운 대화를 들기도 하였다. 최선희(2001)는 의사소통, 애정과 사랑, 신뢰와 지지, 문제해결능력, 부모역할, 자율성, 유연성, 신념체계 등의 8개 영역으로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족학 전공자들과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연구하여 영역을 추출한 어은주·유영주(1995)의 가족건강성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족건강성과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면 먼저 어은주 등(1997)의 연구에서 도시주부의 총체적인 가족건강성이 77.6점(M=3.88)으로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가족건강성의 영향변인으로 주부의 결혼만족도, 주관적 계층, 자아존중감, 사회로부터의 물질적 지지, 남편의 소득 등이라 밝혔다. 양순미·유영주(2000)는 농촌가족의 건강성 연구에서 부모세대(40대 중반)의 총체적인 가족 건강도는 71점(M=3.55), 자녀세대(10대 중반)의 가족 건강도는 65점(M=3.27)으로 세대간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으며, 영향변인으로는 결혼만족도와 부부문제 심각도, 가족형태 등이라 보고하였다. 홍성례·유영주(2001)는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 점수가 3.83으로 높다고 보고하였으며, 영향변인으로 결혼만족도, 가족의 정신적 건강, 남편의 직업, 부인의 직업, 결혼지속년수 등을 밝혔다.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기타 변인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족건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있는가 하면(Voydanoff, 1991), 반대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낮게 나타난 결과도 있어(Byles, Byrne, Offord, 1988) 경제적 요인이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변인임을 보여준다. 어은주 등(1995)의 연구에서는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건강성은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Brigman 등(1986)의 연구에서는 확대가족의 가족건강성이 핵가족보다 높게 나타나 확대가족 형태가 가족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Knaub(1985)의 연구에서는 전문직 여성들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 결과의 연구(Brigman et al., 1986)도 있다. 또 종교 변인이 가족건강성에 영향변인임을 밝힌 연구도 있다(Stinnet et al., 1979; 어은주·유영주, 1995).

한편 결혼만족도가 가족건강성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힌 연구들이 있어(어은주·유영주 1997; 최규련, 1994; Farrell & Barnes, 1993) 가족건강성에 있어 결혼만족도 변인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아존중감도 가족건강성의 영향요인으로 보고 되고 있다(유영주, 2001a; 어은주·유영주, 1997; 최규련 1994).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일반부부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결과이지만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전혀 없는 실정이어서 이와 연관시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을 알아보는 일반 문항과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 가족건강성 척도, 결혼만족도 척도, 자아존중감 척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가족스트레스 척도는 전영자(1997)의 척도를 이용하여 부부 역할 스트레스, 부모역할 스트레스 문항을 만들고,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원으로 나타난 가사에 관련된 스트레스, 성인자녀역할 스트레스 등 2개영역을 추가하여 4개영역, 총 20문항의 가족스트레스 척도를 직접 만들었다. 예비조사 후, 내적 일관성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총 18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2였다.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척도는 전영자(1997), 이현주(1997)의 척도 및 선행연구를 토대로 21문항을 만들었다. 예비조사를 한 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5요인(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으로 나타난 문항만 선택하여 총 16문항으로 척도를 재구성하여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사용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각 요인별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결과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83으로 나타났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유영주(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즉 선행연구의 가족건강성 척도를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4영역 23문항으로 수정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내적일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3문항을 제거하고 총 20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관계에 대한 응답정도에 따라 '결코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항상 그렇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건

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6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슈(Schumm)과 그의 동료들이 제작한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1980)을 이용하였다. 본 척도는 개인의 감정에 초점을 두고 결혼관계에 대한 개인의 전반적인 평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로서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가를 묻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는 '매우 불만족'의 1점에서 '매우 만족'의 7점까지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96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관심을 측정하는 것으로서(Rosenberg, 1979), 본 연구에서는 Rogenberg (1972)와 Krause & Tran(1989)의 척도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4문항을 본 조사에 사용하였으며,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에서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는 리커트 5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전체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긍정적인 문항을 사용하고 2문항은 부정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정적인 문항은 통계처리 시 역산을 하여 점수를 내었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74로 나타났다.

#### 2.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한 조사대상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직업 때문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각자의 주거를 두고 일주일에 3일 이상을 떨어져서 지내는 전문직, 관리직 그리고 사무직에 종사하는 주말부부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말부부의 연령은 남편은 40대가 가장 많고(45.5%) 아내는 30대가 가장 많은 것(48.5%)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교육수준은 대학졸업이 과반수이상(53.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학원 졸업은 두 번째로 높게(26.9%) 나타나 연구대상자의 높은 학력수준을 보였는데, 이는 연구 특성상 조사대상이 전문직과 교사에 치중된 탓으로 보인다.

주말부부의 종교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종교를 가진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았다. 주말부부의 자녀수는 2명이 가장 많았으며(62.6%), 만이의 연령은 7세 이하가 가장 많았다(28.4%). 주말부부의 직업은 남편과 아내 모두 교사·연구직이 가장 많았으며(43.7%), 두 번째 순위로 남편은 관리직(23.1%), 아내는 전업주부(29.9%)로 나타났다. 가정의 월수입 정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30.6%), 주중 가족형태를 보면 '혼자' 사는 경우가 과반수이상(54.1%)으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자녀와' 사는 것(32.9%)으로 나타났다. 부부별로 보면, 남편의 경우는 '혼자'가 절대적으로 높게(86.8%) 나타난 반면 아내의 경우는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가 가장 높게(58.2%) 나타나 주말부부 아내가 대부분 자녀를 데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말

&lt;표 1&gt;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남편(134)	아내(134)	전체(268)	구 분	전체(268)	
연령 20대	4( 3.0)	7( 5.2)	11( 4.1)	자녀수 1명 2명 3명 이상	76(28.4)	
30대	48(35.8)	65(48.5)	113(42.1)		168(62.6)	
40대	61(45.5)	45(33.6)	106(39.6)		24( 9.0)	
50대	21(15.7)	17(12.7)	38(14.2)			
교육 수준	고졸 5( 3.7) 전문대졸 8( 6.0) 대학졸 74(55.2) 대학원졸 47(35.1)	21(15.7) 18(13.4) 70(52.2) 25(18.7)	26( 9.7) 26( 9.7) 144(53.7) 72(26.9)	말이 7세이하 연령 초등생 중·고생 대학생 이상	76(28.4) 70(26.1) 68(25.4) 54(20.1)	
종교 유무	없음 73(54.5) 있음 61(45.5)	66(49.3) 68(50.7)	139(51.9) 129(48.1)	부부가 매주말 만나는 2주마다 기간 3주마다	200(74.6) 54(20.2) 14( 5.2)	
직업	교수·전문직 24(17.9) 교사·연구직 52(38.8) 관리직(과장이상) 31(23.1) 사무직 27(20.1) 주부 27(20.1)	11( 8.2) 65(48.5) 18(13.4) 40(29.9)	35(13.1) 117(43.7) 31(11.6) 45(16.7) 40(14.9)	가정의 월수입 정도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4( 5.2) 70(26.1) 82(30.6) 60(22.4) 42(15.7)
주중 가족 형태	혼자 116(86.6) 자녀와 10( 7.5) 자녀와 부모 5( 3.7) 자녀와 친정부모 3( 2.2) 기타 3( 2.2)	29(21.6) 78(58.2) 13( 9.7) 14(10.4) 3( 1.1)	145(54.1) 88(32.9) 18( 6.7) 14( 5.2) 3( 1.1)	주말 1년 미만 부부로 1-2년 산 3-5년 기간 6-9년 10년 이상	60(22.4) 68(25.4) 62(23.1) 54(20.1) 24( 9.0)	
평소 집안일을 도우는 사람	없다 101(75.4) 있다 33(24.6)	90(67.2) 44(32.8)	191(71.3) 77(28.7)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남편 212(79.1) 아내 22( 8.2) 양쪽 모두 34(12.7)	
도우는 사람	고용인 6(18.2) 부모 20(60.6) 처부모 5(15.1) 기타 2( 6.1)	8(18.2) 16(36.4) 18(40.9) 2( 4.5)	14(18.2) 36(48.6) 23(29.8) 4( 5.2)	5년 이하 결혼 6-9년 지속 10-14년 연수 15-19년 20년 이상	48(17.9) 46(17.2) 68(25.4) 52(19.4) 54(20.1)	

부부가 만나는 기간은 '매 주말'이 가장 높게 나타나(74.6%), 대부분의 주말부부가 주말마다 규칙적으로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소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약 1/3정도(28.7%)로 나타났으며 아내(32.8%)가 남편보다(24.6%)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내가 직장과 자녀교육을 함께 맡고 있는 비율이 더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시부모'가 가장 많고(46.8%), 그 다음이 '친정부모'(29.8%), 고용인(18.2%) 순이다. 부부별로 보면 남편은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60.6%), 아내의 경우는 '친정 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40.9%)가 '시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36.4%)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아내가 친정부모의 도움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은 '남편'이 대부분(79.1%)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은 1-2년이 가장 많았으며(25.4%), 그 다음은 3년-5년 사이(23.1%)로 나타났다. 결혼지속연수는 10년-14년 사이가 가장 많고(25.4%), 그 다음은 20년 이상(20.1%)으로 나타났다.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말부부가 가지는 특성을 파악하고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한 6개월 이상을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는 응답자만을 포함시켰다. 예비조사는 2002년 3월 11일부터 4월 8일까지 4주 동안 주말부부 3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한 후, 수정한 설문지로 2002년 5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을 대상으로 유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구한 주말부부 200쌍에게 배포되었으며, 본 연구에는 134쌍, 총 268명의 자료가 최종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WIN 10.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신뢰도, 요인분석,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 Multiple Range Test, Pearson 상관관계, 회귀 분석 방법 등을 사용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2.98로 나타났다. 이는 백분위로 환산하면 59.6점으로서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는 주말부부 형태가 가족생활에서 그다지 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생활유형으로 나타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주말부부가 가족유형의 하나로 정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Groves & Horn-wingerd, 1991; Kim, 2001)에서 주말부부들이 자신의 생활형태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역동적이고 일시적인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경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연구대상자들의 직업이 주로 교수·전문직과 교사·연구직 등이 주류를 이루어 가족생활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한 결과 때문에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는 주말부부 중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직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생활패턴을 잘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스트레스가 낮다는 선행연구(채옥희, 1998)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이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Bunker et. al., 1992)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라 하겠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5점 만점에 3.1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자녀역할 스트레스 3.00, 가사 관련 스트레스 2.92, 부부역할 스트레스 2.8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는 가족스트레스 중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느끼고 있으며, 이는 주말가족의 가장 큰 단점이 자녀양육이라고 밝힌 선행연구들(김경희·정옥분, 1998; 김태현·박숙자, 1992; 옥경희, 1999; 이기숙, 1999; 한유미, 2003; 허영숙, 1993)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 (N=268)

구 분	M	SD	백분위 점수
전체 스트레스	2.98	.71	59.6
부부역할 스트레스	2.81	.73	56.2
가사관련 스트레스	2.92	.87	58.4
부모역할 스트레스	3.19	.91	63.8
자녀역할 스트레스	3.00	.81	60.0

그 다음으로 나타난 '자녀역할 스트레스'는 주말부부가 성인 자녀입장에서 노부모에 대한 자녀역할에 대해 스트레스를 가지는 것으로, 주말부부라는 상황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실행할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느끼는 스트레스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족이 핵가족 형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만난 부부는 그동안 밀린 가족생활을 정리하기에 바빠서 따로 부모님을 찾아뵙는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생활이 누적된다면, 아들은 아들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으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질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채옥희, 1998)에서도 주말부부가 며느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여성 스스로의 죄책감이 있다고 언급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변하고는 있지만 우리 의식의 기저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족윤리 의식이 흐르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전통적 가치관 성향이 강한 기혼자녀들의 노부모양육에 관한 책임의식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사 관련 스트레스'는 세 번째 순위로 나타났는데 주말부부의 가사노동 관련 스트레스는 물질적인 면으로서 이는 사회화나 친척들의 도움을 통해 적절하게 수행되기 때문에(문숙재외, 2003; 채옥희, 1998, 2002) 낮은 순위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영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는 우리나라 가족이 아직도 부부중심보다는 자녀중심의 생활에 비중을 더 두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주말부부가 부부 보다는 부모역할에 치중하여 부모역할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하기 때문에 부부문제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겠다. 이는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의 주말부부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꼽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 주말부부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의 부부역할을 서로 잘 수행해 나가기 때문에 부부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 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

주말부부들이 가족스트레스에 대해 어떤 대처전략을 사용하고 있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3>과 같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요인분석 한 결과 5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KMO (Kaiser-Meyer-Olkin) 측도 값이 높아(0.6이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가 깊어서 요인분석 조건을 충족함을 알 수 있다(부록 참조).

요인분석 후 그 요인을 중심으로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사용정도는 5점 척도에 평균 3.37로 나타났다. 이것은 백분위로 환산하면 67.4점으로,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할 때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서 주말부부들이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인지 재구조화’ 전략이 가장 높게(3.67) 나타났으며, 다음이 ‘역할분담’ 전략(3.58)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들이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인지 재구조화’ 전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말부부의 경우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족생활을 이끌어 가야 하므로 가족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의 전환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표 3>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에 대한 요인분석 (N=268)

문항 번호	요인 1	요인 2	요인3	요인4	요인5	h <sup>2</sup>
38	.569	-.020	.202	.370	-.110	.514
40	.020	.161	.020	.791	.020	.662
41	-.020	.030	.020	.020	.904	.821
42	.030	.813	.202	.020	.020	.714
43	.664	.130	-.151	.382	.020	.627
44	.110	-.020	.666	.121	.296	.565
45	.133	.020	.393	.614	.223	.603
46	.020	.840	.192	.231	.020	.803
47	.734	.226	.130	.020	-.020	.613
48	.285	.355	.712	.020	.050	.724
49	-.030	.196	.020	.020	.855	.782
50	.756	.128	.242	.020	.020	.646
51	.231	.232	.758	.174	-.145	.733
52	.345	.232	.020	.622	.030	.561
53	.337	.637	-.108	.109	.132	.561
54	.621	-.020	.324	.020	-.020	.493
교유치	4.785	1.935	1.401	1.246	1.055	
누가변량 (%)	29.90	41.99	50.75	58.54	65.14	
KMO			.775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			

요인1: 인지 재구조화, 요인2: 취미활동,  
 요인3: 역할 분담, 요인4: 관리활동,  
 요인5: 정서적 지원

<표 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N=268)

구 분	M	SD	백분위 점수
전체 대처전략	3.37	.51	67.4
인지 재구조화	3.67	.63	73.4
취미활동	2.85	.90	57.0
역할분담	3.58	.76	71.6
관리활동	3.45	.72	69.0
정서적 지원	2.97	.92	59.4

이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이현주, 1997; 전영자, 1997; 최혜경·노치영, 1994)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한 주말부부 가족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적 인

식이나 문화에 대한 여성의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곡인숙(2003)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두 번째로 나타난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은 ‘역할분담’ 전략으로서 주말부부가 주말이라는 한정된 시간만을 함께 공유하는 점을 감안할 때 역할분담을 잘 활용함으로써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문숙재외, 2003; 채옥희, 1998)에서 주말부부의 아내들이 주말이 되면 혼자서 많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을 가족이 함께 분담하고, 남편들도 적극 가사 일을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을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취미활동’ 전략 순으로 나타나 ‘정서적 지원’과 ‘취미활동’ 전략을 낮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주말부부들이 ‘정서적 지원’ 전략이 낮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의외의 결과였는데 이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연구대상자들이 인지적 측면의 전략을 더 많이 선호하는데 기인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결과를 통해 볼 때 주말부부들은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사용하는데 있어 ‘인지 재구조화’나 ‘역할분담’ 등과 같은 인지적 측면의 대처전략을, ‘정서적 지원’이나 ‘취미활동’ 같은 정서적 측면의 대처전략보다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정도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및 관련변인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백분위로 환산하면 75.2점이며, 중간점인 3점을 기준으로 볼 때 중간보다 높은 점수로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결과는 어은주 등(1997)의 도시주부의 가족건강성 3.88점이나, 홍성례 등(2001)의 남편의 가족건강성 3.83점과 비교해볼 때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일반부부의 가족건강성 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서 이는 부부가 주말에만 만나는 특수상황 때문에 일반 부부에 비해 조금 더 낮게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런 해석도 가능하다.

<표 5>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정도 (N=268)

구 분	M	SD	백분위 점수
가족의 건강성 전체	3.76	.58	75.2
가족원간의 유대	3.86	.59	77.2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77	.63	75.4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57	.62	71.4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	3.84	.61	76.8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원간의 유대’가 3.86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족문제해결 수행능



력' 3.84, '가족원간의 의사소통' 3.77,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3.57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은 '가족원간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나 가족건강성 중에서도 가족원간의 유대가 매우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선행연구(어은주·유영주, 1997; 홍성례·유영주, 2001)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역은 선행연구보다 더 낮게 나타나 '가족원간의 가치체계 공유' 영역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어은주 등, 1997; 홍성례 등, 2001)와 차이를 보이는 점은 선행연구에 비해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더 낮다는 점이다. 이는 주말부부의 전체 가족건강성이 일반 부부에 비해서 조금 더 약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Gerstel & Gross(1984)의 연구에서 주말부부의 단점으로 일상생활을 나누어 할 기회가 줄어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준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볼 때 주말부부라는 특성으로 인해 가족건강성이 조금 더 낮아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으로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두 번째 순위이고 '가족원간의 의사소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난 점이다. '가족문제해결 수행능력'이 두 번째로 나타난 점은 본 연구 대상이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주말부부여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인 생활인이라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 생각되며, 이는 홍성례 등(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그러나 '가족간의 의사소통'이 낮게 나타난 점은 선행연구(어은주·유영주, 2001; 홍성례·유영주, 2001)와 비교할 때 순위 상으로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이는 주말부부라는 생활양식을 감안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주말부부라는 상황 자체가 부부가 자주 만날 수 없는 조건이므로 정서적으로 조금 소원해지기 쉬운데 여기에다 부부간의 의사소통까지 낮다면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약화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살펴보면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의 교육수준(p<.01), 종교유무(p<.01), 직업(p<.01),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p<.01),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p<.001), 부부가 만나는 주기(p<.001), 결혼지속년수(p<.01), 자아존중감(p<.001), 결혼만족도(p<.0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주말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았으며, 이는 홍성례(1988)의 연구에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종교를 가진 사람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Stinnet, 1979; 어은주, 1996; 윤세은, 2000)에서 종교가 가족건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표 6> 주말부부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	전체(268)			
	N	M	F(t)	D
연령 20대	11	3.93	.68	
30대	113	3.78		
40대	106	3.76		
50대	38	3.67		
교육 수준			5.23**	
고졸	26	3.39		A
전문대졸	26	3.63		B
대학졸	144	3.82		B
대학원졸	72	3.83	B	
종교 유무			-2.71**	
없음	139	3.67		
있음	129	3.86		
자녀수			1.58	
1명	76	3.78		
2명	168	3.73		
3명	24	3.95		
직업			3.18**	
교수·전문직	35	3.85		B
교사·연구직	117	3.88		B
관리직(과장이상)	31	3.66		B
사무직·공무원	45	3.63		B
주부	40	3.58	A	
가정 월수입			2.04	
200만원 미만	14	3.81		
200-300만원 미만	70	3.64		
300-400만원 미만	82	3.73		
400-500만원 미만	60	3.90		
500만원 이상	42	3.84		
주중 가족 형태			.91	
혼자	145	3.76		
자녀와	88	3.73		
자녀 및 부모	18	3.76		
자녀 및 처부모	14	4.04		
기타	3	3.80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4.11**	
1년 미만	60	3.86		B
1-2년	68	3.92		B
3-5년	62	3.55		A
6-9년	54	3.73		B
10년 이상	24	3.68	B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7.35***	
남편	212	3.69		A
아내	11	3.94		B
양쪽 모두	17	4.05	B	
부부가 만나는 주기			11.95***	
매주말	200	3.86		B
2주마다	54	3.52		A
3주마다	14	3.33	A	
결혼 지속 년수			3.62**	
5년이하	48	3.92		C
6-9년	46	3.56		A
10-14년	68	3.86		B
15-19년	52	3.79		B
20년 이상	54	3.64	B	
자아존중감			-6.63***	
낮은 집단	147	3.57		
높은 집단	121	4.00		
결혼만족도			-9.15***	
낮은 집단	109	3.42		
높은 집단	159	3.99		

\*\* p<.01, \*\*\* p<.001, D: Duncan test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직업이 교사·연구직과 교수·전문직 일 때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직업이 전업주부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남편의 직업이 전문·관리직일 때 가족의 응집성이 높게 나타나며, 전문직 여성들의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선행연구(김진희, 1988; 홍성례외, 2001; Knaub, 1985)와 일치하는 맥락이다. 전업주부가 가족건강성이 더 낮게 나타난 것은 주말부부 중에서도 전업주부의 어려움이 더 크다는 면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이 '1-2년 사이' 일 때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1년 미만'일 때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5년' 사이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6-9년일 때는 조금 높아졌다가 10년 이상일 때는 다시 조금 낮아졌다. 즉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달라짐을 의미하며, 특히 주말부부로 보낸 기간이 '3년-5년' 사이일 때가 가장 가족건강성이 낮게 나타나서, 그 기간의 주말부부의 적응이 가장 어렵고 갈등이 많은 시기임을 보여준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남편과 아내 '양쪽'이 모두 이동할 때 가장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아내'가 이동할 때이고, '남편'이 이동할 때 가장 가족건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남편이 이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 주로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있고 남편이 주말에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이동하거나, '아내'가 이동할 경우가 '남편'이 이동하는 것 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에 따른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결과는 주말부부들이 남편이 이동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필요에 따라 '부인'이나 남편과 아내 '양쪽'이 함께 이동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겠으며, 이는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사정에 따라 아내나 남편이 움직이거나 또는 부부가 동시에 자유롭게 이동하여도 그것이 가족건강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을 의미하며, 남편만 이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요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겠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부부가 만나는 주기가 '매주말' 일 때가 '2주 마다'나 '3주 마다' 일 때 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말부부의 경우 만나는 주기가 가능한 한 '매 주' 계속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즉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는 긴 주기보다는 짧은 주기로 만날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결혼지속년수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다. 즉 결혼지속년수 '5년 이하' 일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10년-14년', '15-19년', '20년 이상', '6-9년' 순으로 나타나서, 결혼지속년수가 '6-9년' 일 때 가족건강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양순미외, 2001)에서 결

혼지속기간이 유의하지 않은 변인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연구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결혼지속년수가 '6-9년' 사이 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나, 이 기간이 주말부부의 가족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시기임을 암시한다 하겠다. 이 시기는 이혼율이 높게 나타나는 부부 권태기 시기인 '결혼 5년에서 10년 사이'와 맞물려 있어 이 때 가족건강성이 낮은 것과 부부권태기 시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한 주말부부의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 살펴보았는데, 자아존중감과 결혼만족도 척도는 단일문항이 아니라 여러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점수를 합산하여 각기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자아존중감은 5점 척도에 4문항이므로 '대체로 그렇다' 4점과 '정말 그렇다' 5점에 응답한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16점 이상)으로 하였고, '그저 그렇다' 3점에 응답한 것을 포함하여 그 이하의 점수(15점 이하)를 받은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혼만족도는 7점 척도에 3문항이므로 '조금 만족' 5점과 '만족' 6점, '매우 만족' 7점에 응답한 사람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15점 이상)으로 하였고, '보통' 4점에 응답한 사람을 포함하여 그 이하에 답한 사람들(14점 이하)은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 $p<.001$ )과 결혼만족도( $p<.001$ )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자아존중감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에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어은주·유영주, 1997; 최규연, 1994; 최희진·유영주, 2001)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즉 주말부부의 자아존중감 역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결혼만족도가 낮은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나서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 변인 역시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보여준다. 본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가족건강성과 정적인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양순미외, 2001; 어은주·유영주 1997; 홍성례·유영주, 2001; Farrell & Barnes, 1993)와 일치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 4.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보기위해서 먼저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중공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00~.61의 상관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말

<표 7> 관련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00														
2	-.13*	1.00													
3	-.28**	-.02	1.00												
4	.05	.16**	.03	1.00											
5	-.01	.41**	-.01	.25**	1.00										
6	.33**	.05	-.54**	.04	.04	1.00									
7	-.03	.20**	.23**	.08	.05	-.24**	1.00								
8	-.02	.41**	-.01	.09	.12*	.01	.29**	1.00							
9	-.01	.11	-.13*	-.02	-.00	.15*	.15*	.23**	1.00						
10	.00	.79**	-.13*	.14*	.46**	.11	.18**	.43**	.11	1.00					
11	-.06	-.22**	-.03	-.07	-.11	-.07	-.09	.11	.09	-.20**	1.00				
12	.02	-.12*	.08	.17**	.02	-.10	.00	-.03	-.03	-.05	-.18**	1.00			
13	-.07	-.03	.19**	.02	-.11	-.21**	.15*	-.13*	-.11	-.07	-.35**	.45**	1.00		
14	-.03	-.09	.44**	.07	.05	-.32**	.26**	-.13*	-.09	-.13*	-.21**	.30**	.34**	1.00	
15	.02	-.08	.21**	.17**	.03	-.19**	.13*	-.14*	-.29**	-.08	-.26**	.60**	.61**	.48**	1.00

\* p<.05, \*\* p<.01

1: 성별 2: 연령 3: 교육수준 4: 종교 5: 자녀수 6: 직업 7: 경제수준 8: 주말부부로 산 기간 9: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10: 결혼지속년수

11: 가족스트레스 12: 대처전략 13: 결혼만족도 14: 자아존중감 15: 가족건강성

부부의 가족건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는 변인은 결혼만족도로서 상관계수  $r=.61$ 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과 유의한 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은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r=.60$ ), 자아존중감( $r=.48$ ),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 $r=-.29$ ), 가족스트레스( $r=-.26$ ), 교육수준( $r=.21$ ), 직업( $r=-.19$ ), 종교( $r=.17$ ), 주말부부로 산 기간( $r=-.14$ ), 가정의 월수입( $r=.13$ )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가 만나는 주기와 가족스트레스, 직업, 주말부부로 산 기간 등은 가족건강성과 부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각 독립변인들이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단계별 투입방식(stepwise)에 의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종 회귀식에는 결혼만족도,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자아존중감, 부부가 만나는 주기, 종교의 5개 변인이 포함되었다. 이 변인들을 중심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우선회귀가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F=81.00$  ( $P<.001$ )이며, Durbin-Watson 계수가 1.774로서 2에 근접한 값을 지녀 본 연구에서 채택한 회귀식이 회귀가정을 충

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 $\beta=.347$ )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beta=.350$ ), 자아존중감( $\beta=.234$ ), 부부가 만나는 주기( $\beta=-.214$ ), 종교( $\beta=.080$ ) 순이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부부가 만나는 주기가 짧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진 집단이 종교를 가지지 않은 집단보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5개의 독립 변인에 의해 설명되는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61%로 본 회귀식은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결혼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37%)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있어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주말부부의 결속 방향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결과는 일반 주부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선행연구(어은주·유영주, 1997)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그러면서도 본 연구의

<표 8>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N=268)

변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			
	B	$\beta$	R <sup>2</sup>	Partial R <sup>2</sup>
결혼만족도	1.060	.347	.373	.373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7.861	.350	.502	.128
자아존중감	1.056	.234	.555	.054
부부가 만나는 주기	-4.463	-.214	.601	.046
종교	1.839	.080	.607	.006
회귀상수	21.792			
F	81.002***			
R <sup>2</sup>	.607			
D-W계수	1.774			

\*\*\* p<.001

(N=268)

가족건강성에 대한 결혼만족도의 설명력이 선행연구의 결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말부부에게 있어 결혼만족도는 일반부부의 결혼만족도 보다 가족건강성을 설명하는데 더욱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말부부의 삶에 있어서는 부부간의 결혼만족도가 우선적으로 충족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본 결과는 가족건강성이 부부관계의 결과 관계 있다는 선행연구들(Ammons, et al., 1980; 홍성례·유영주, 2001)의 주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함께 현대가족생활에서 새로운 가족형태의 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말부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회적으로 주말부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에 대한 연구가 별로 활성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 주말부부라는 독특한 삶의 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그에 대한 대처전략, 그리고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주말부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를 위해 전국적으로 주말부부를 유의 표집하여 총 134쌍, 268명을 연구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98로 나타나 가족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점은 주말부부 가족에 대한 사회의 통념이 부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김태현·박숙자, 1992; 박숙자, 1991)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볼 때 적은 부분이기기는 하지만 주말부부가 생각만큼 가족스트레스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가족스트레스를 하위영역별로 보았을 때 부부

역할, 가사관련, 부모역할, 자녀역할 스트레스의 4영역 중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정도를 비증 있게 보여주었다. 이처럼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중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는 맥락으로 주말부부의 공통적 어려움이 부모역할 즉 자녀양육의 문제라 할 수 있겠다. 다시말해서 본 결과는 주말부부들이 가족스트레스 중에서 '부모역할 스트레스'의 중압감을 느낄 수 있는 측면으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주말부부가 증가할 사회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정책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이는 주말부부의 부모자녀관계에서 주말부부 여성들은 대부분이 시간적인 제약으로 자녀의 감독 소홀이나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제한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불안감이나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결과(옥경희, 1999; 채옥희, 1998; 한유미, 2003)와 연계해 볼 때, 이러한 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병행될 때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말부부 개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대처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둘째,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은 5점 만점에 평균 3.37로 나타나 주말부부들이 가족스트레스에 대해 대처전략을 비교적 잘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말부부라는 제한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주말부부들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전략을 하위영역별로 살펴 보았을 때 '인지 재구조화', '취미활동', '역할분담', '관리활동', '정서적 지원' 등의 전략중에서 '인지 재구조화'전략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가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으로서 인지적인 대처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이현주, 1997; 전영자, 1997)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일치하며, 주말부부라는 시간과 공간이 제한된 상황을 생각할 때 적절한 대처전략으로 생각된다.

셋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76으로 나타나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일반적인 사회통념의 부정적인 우려와 달리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주말부부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한 형태로서 긍정적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다.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은 일반부부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어은주 등, 1997; 홍성례 등, 2001)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으나 큰 점수 차이가 아니므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일반 부부에 비해 낮다는 일방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 부분은 앞으로 주말부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어 연구결과가 누적될 때 더욱 뚜렷한 경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았을 때 '가족원간의 유대'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 영역은 계속해서 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말해서 주말부부 역시 가족의 소중함을 그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족간의 유대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으로는 부부의 교육수준, 종교유무, 직업, 주말부부로 지낸 기간, 주말에 이동하는 사람, 부부가 만나는 주기, 결혼지속년수, 자아존중감, 결혼만족도 변인 등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결혼만족도로 나타났다. 이 변인 단독의 설명력이 37%로서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본 결과는 조사대상은 다르지만 선행연구(양순미외, 2001; 어은주·유영주 1997; 홍성혜·유영주, 2001; Farrell & Barnes, 1993)결과를 지지하고 있어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에 있어 결혼만족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는 낮고 대처전략은 높은 편이어서 주말부부들이 이미 자신의 삶의 패턴을 잘 조절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잘 살아가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주말부부는 부부가 주중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족스트레스가 낮고 이에 대한 대처전략을 잘 세우고 있다는 것은 사회의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주말부부 형태도 긍정적인 삶의 패턴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주말부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와 관련하여 볼 때 긍정적인 시사점을 준다 하겠다. 그리고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부모역할 스트레스'인 점과 관련해서는 주말부부의 삶의 형태에서 부모역할의 어려움에 대한 사회제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주말부부를 위한 가족정책이나 복지관련 정책을 입안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부모역할의 어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보육정책이나 관련 프로그램의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말부부라는 특수 조건에도 불구하고 가족건강성 점수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 주말부부의 양호한 가족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말부부의 가족불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일반부부에 비해 전체적으로 조금 더 낮게 나타난 점은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일반부부에 비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시사점을 주는 측면이다. 이는 다시말해서 상황에 따라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주말부부의 가족건강성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가족적·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가족건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결혼만족도로 나타난 점은 주말부부라는 특수상황에 있어서도 부부간의 결혼만족도 여부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런 결과는 주말부부의 가족생활이 성공적으로 영위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바로 주말부

부의 결혼만족도 여부에 달려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와 설명은 우리나라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대처전략, 가족건강성에 대한 일부를 이해하는 자료에 불과하며 이런 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선행연구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이 표준화된 척도는 아니므로 연구결과를 주말부부의 전형적인 삶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전국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의표집과 눈덩이 표집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모집하였으므로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여 체계적인 표본 구성과 표준화된 척도로 조사한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나라 주말부부의 가족생활을 일반화할 수 있는 연구결과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접수 일 : 2004년 01월 14일

□ 심사 일 : 2004년 01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4년 03월 17일

#### 【참 고 문 헌】

- 곽인숙(2003). 주말부부의 거주유형에 따른 심리적 비용과 보상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87-199.
- 김경신·권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 김경은·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용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6(1), 35-49.
- 김명자(1991). 중년기 부부의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29(1), 203-216.
- 김은경(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25-43.
- \_\_\_\_\_(2001). 사회적 지원이 맞벌이 주말부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3), 1-16.
- 김태현·박숙자(1992). 한국의 비동거 가족연구. **가족학논집**, 4, 45-74.
- 문숙재·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13-220.
- 박숙자(1991). 직업과 가족. **한국가족학회(편)**. **현대가족과 사회** (212-231). 교육과학사.
- 서혜영·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 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4(2) 257-280.
- 양순미·유영주(2000). 부모와 자녀세대가 인지한 농촌가족의 건

- 강성 및 관련변인의 특성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 (1) 67-91.
-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81-94.
- 어은주·유영주(1997). 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69-285.
-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변인 연구 - 자녀교육기 가족의 주부를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 유영주(2001a).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 유영주(2001b). 왜 건강가족 이야야 하는가. **한국가족학회 2001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2.
- 윤세은(2000).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숙(1999). 맞벌이 주말가족의 성격분석을 위한 시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1-23.
- 이현주(1997).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영자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39-355.
- 정문자·이미리(2002). 취업주부의 직업 및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인구학적 변인과 심리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5-126.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강간에 대한 대처행동 정도와 지각된 대처효율성 및 관련변수.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채옥희(1998). Commuter Marriage 가정경영 실태와 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6(9), 153-166.
- \_\_\_\_\_(2002). Commuter Marriage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실태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2) 215-225.
- 최규련(1994). 가족체계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140-152.
- 최선희(2001). 한국인의 건강성 영역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학회 2001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9-22.
- 최정혜(2002).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및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49-60.
- 최혜경·노치영(1994). 기혼남녀의 부부간 문제해결 행동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262-272.
- 최희진·유영주(2001). 전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기능도와의 관계 연구.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229-245.
- 한유미(2003). 주말부부와 일반부부의 자녀양육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175-185.
- 허경옥(2003). 주말부부가계와 비주말부부가계의 객관적, 주관적 경제구조분석 및 비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2), 201-212.
- 허봉렬(1996). 건강한 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 제3회 가정의날 기념행사: 재인용.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82-83). 서울: 교문사,
- 허영숙 (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성례·유영주(2001). 남편이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건강가족연구**(423-461). 서울: 교문사.
- Ammons, P. & Stinnett, N.(1980). The vital marriage: A closer look. *Family Relations*, 19, 37-42.
- Beutell, N. J. & Greenhaus, J. H.(1983). Integration of home and non-home roles: Women's coping and conflic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43-48.
- Brigman, K. M. L., Schons, J. & Stinnett, N.(1986). Strengthens of families in a society under stress: A study of strong families in Iraq. *Family Perspective*, 20, 61-73.
- Bunker, B. B., Zubek, J. M., Vanderslice, V. J. & Rice, R. W.(1992). Quality of life in dual-career families: Commuting versus single-residence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399-407.
- Byles, J. Byrne, M. H. & Offord, D. R.(1988). Ontario child health stud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general functioning subscale of the McMaster Family Assessment Device. *Family Process*, 27(1), 97-104.
- Curran. D.(1983). *Traits of a healthy family*. Minneapolis: Wonston Press.
- Farrell, M. P. & Barnes, G. M.(1993). Family system and social support: A test of the effect of cohesion and adaptability on the functioning of parents and adolesc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1). 119-132.
- Gerstel, N. R. & Gross, H.(1984). *Commuter Marriage*. N.Y.: The Guildford Press.
- Groves, M.M. & Home-wingerd, D. M.(1991). Commuter marriages: personal, family and career issues.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75(4), 212-217.
- Hall. C. M.(1994). *New family: Revising and creating meaningful bonds*. New York: The Hawrth Press.
- Heckman, N. S., Bryson, R. & Bryson, J.(1977). Problems of professional couples: A context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323-330.
- Song-Chul, Kim.(2001). Weekend couples among Korean professionals: An Ethnographpy of living apart on weekdays. *Korea Journal*. 41(4). winter, 28-47.
- Knaub, P. K., Hanna, S. & Stinnett, N.(1984). strengths of remarried families. *Journal of Divorce*, 7. 재인용: 유영

주(2000). 건강가족연구(181). 서울: 교문사.

Krause, N. & Tran, T. V.(1989). Stress and religious involvement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y*, 44, s4-13.

Lazarus, R. & Folkman, S.(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McCubbin, H. L., Joy, C., Cauble, A., Comeau, J., Patterson, J. M. & Needle, R.(1981).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855-871.

McCubbin, H. I. & Patterson, J. M.(1983). The family stress process: The double ABCX model of adjustment and adaption. In H. I. McCubbin, M. B. Sussman & J. M. Patterson (eds). *Social stress and the family : Advances and developments in family stress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Haworth Press.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on, A., Muxen, M & Wilson, M.(1983). *Families: What makes them work*.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

Otto, H. A.(1962). What is a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1.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innet, N. & Sauer, K. H.(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Voydanoff, P.(1991).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a review of eighties. In booth(Eds.).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and looking back*. NCFR Press. 재인용.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180). 서울: 교문사.

<부 록> 요인분석 문항내용

문항 번호	문 항 내 용
38	나는 주말부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40	집안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미리 스케줄을 잡아 둔다.
41	가끔씩 힘들면 나의 감정을 친구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42	생활스트레스가 쌓이면 운동을 하러간다.
43	나는 주말부부도 좋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44	집안일은 서로 협력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45	생활에서 지치면 나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터놓고 이야기한다.
46	스트레스가 쌓이면 취미활동시간을 갖는다.
47	나는 주말부부의 단점보다 좋은 점만 생각한다.
48	주말에 집안 일이 밀렸을 때는 가족이 역할을 분담해 서로 도운다.
49	힘들 때 나의 감정을 선배나 친한 이웃에게 이야기한다.
50	주말부부도 삶의 한 방식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51	우리부부는 집안일을 서로 잘 협력해서 행하고 있다.
52	힘들 때 생각할 시간을 갖거나 휴식을 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한다.
53	스트레스가 쌓이면 영화나 전시회 등을 보러간다.
54	주말부부의 어려움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참아야한다고 생각한다.